

# IDC Market Trends

## Race to Recovery to Future Enterprise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 속에서 대변혁을 겪고 있다. OECD에서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4.5%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6월에 발표된 전망치인 -6.0%보다 +1.5%p 높아진 수치로, 기존 경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시일이 더 걸리겠지만, 2020년 2분기에 경기 침체의 최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 -1.0%, 2021년 +3.1%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DC는 2020년 전 세계 IT 소비가 +0.3%로 성장 정체를 겪는 가운데, 한국은 -1.5%의 역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5년간 1.5% CAGR<sup>19-24</sup>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전통적인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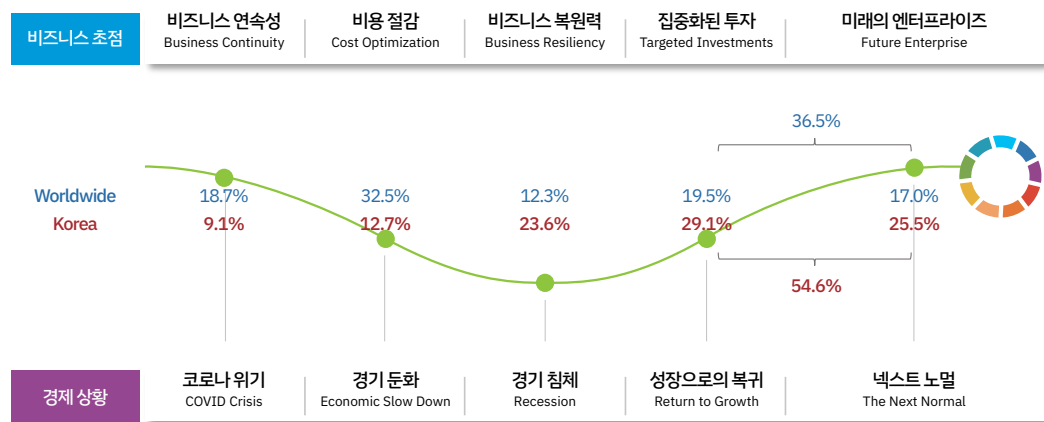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면서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DC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그 여파로 경제가 위기부터 경기 둔화와 침체, 성장으로의 복귀를 거쳐 마침내 넥스트 노멀에 도달하는 5단계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비즈니스 초점도 변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침체를 거쳐 넥스트 노멀 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명확해지고, 이에 회복 탄력성 구축과 집중화된 투자를 거쳐 미래의 엔터프라이즈(Future Enterprise)로의 여정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DC에서 정의하는 미래의 엔터프라이즈란, 디지털 네이티브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조직으로, 전례없는 속도와 민첩성을 갖춘 ‘초고속’, 고도로 분산된 가운데에서도 연결된 시스템을 갖춘 ‘초연결’, 빠르게 확장 가능한 ‘초규모’가 특징이다.

IDC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약 55%가 이미 경기 침체를 딛고 성장 및 넥스트 노멀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맞춰 미래의 엔터프라이즈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37%, 그리고 이보다 두 달 앞서 진행된 동일한 설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응답한 27%보다 높은 수치로, 한국 기업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 발 앞서 빠르게 다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데믹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기 관리로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는 파괴적인 변화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이를 위해 디지털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미래의 엔터프라이즈 구현에 속도를 냄에 따라 비즈니스 리더들의 아젠다도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ID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 운영 회복 탄력성, 고객 경험, 데이터가 C-level의 상위 아젠다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제조산업에서는 IT 오프쇼어링을 통한 비용 절감, 고객 접근성의 디지털화,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체계 확립 등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IDC 경제/비즈니스 회복 5단계 프레임워크**



출처 : IDC COVID-19 Impact on IT Spending Survey (2020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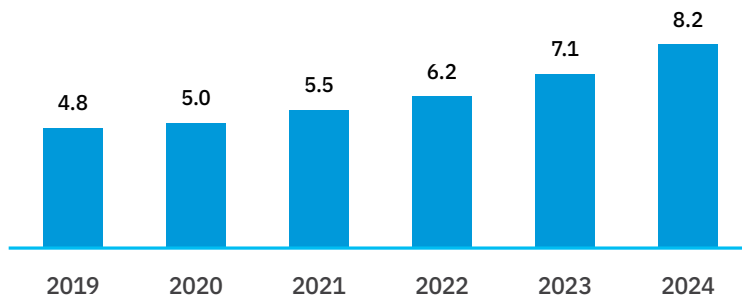
## 제조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제조 산업 체질 개선

전통적으로 제조업은 시간, 비용 등의 이유로 다른 산업에 비해 디지털화가 늦어 디지털 저항자(Digital Resister) 그룹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52시간 제도, 고임금 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맞춤형 제조(customized manufacturing)에 대한 요구 등에 대응하며 디지털 기술 도입이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공급, 유통 등 제조 가치 사슬(value chain)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위기 상황 극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사업구조 개편 등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생산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 ■ IT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조업은 비용절감 이슈가 대두되면서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운영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프쇼어링, 해외 협력 등으로 에코시스템을 형성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 전문성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오프쇼어링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ID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T 오프쇼어링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1.3%로, 글로벌 3.8%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아시아태평양 IT 오프쇼어링 시장 전망 (\$M)



출처: IDC Offshore IT Services Forecast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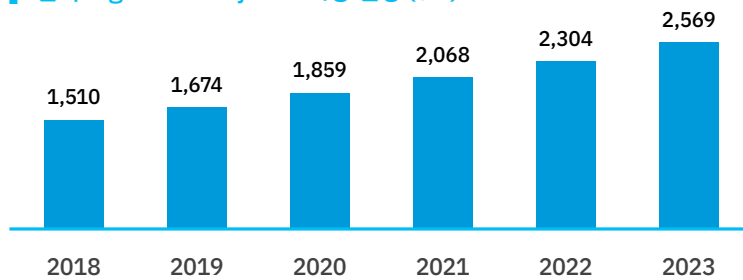
### ■ 고객 접근성(D2C)의 디지털화

D2C(Direct to Customer)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ML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인사이트를 발굴해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제조업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됨에 따라 닷컴 비즈니스는 전통적인 제조산업에 새로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에 AI/ML, AR/VR 등의 기술을 접목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해외 시장개척 등을 통해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MW의 경우 온라인 한정 상품을 기획하면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자체 온라인몰인 삼성닷컴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 ■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체계 확립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 활용은 지난 몇 년간 제조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급변하는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사뿐 아니라 계열사에 흠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데이터로 추출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비즈니스 의사 결정 체계 구축이 위기 상황에서도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체계도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 또한 제조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연결 및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에서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체계 확립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 한국 Big Data Analytics\* 시장 전망 (\$M)



출처: IDC Korea Big Data and Analytics Forecast (2020년)

주: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데이터 추출, 통합, 거버넌스, 이동, 큐레이션, 분석 및 시각화 툴 등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 IDC Recommendations

생산에서 조달, 유통까지 전체 제조 가치 사슬의 디지털화는 현 위기에서 국내 제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IDC는 다음과 같은 제언이 제조 기업이 미래의 엔터프라이즈 구현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T 오프쇼어링과 같은 유연한 IT 인프라 관리 방안을 통해 IT 운영 비용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 고객 최접점에서 직접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화에 대응해야 한다.
-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통한 스마트 제조로 변화하여 민첩성을 기반으로 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p>1</p> <p>글로벌 IT 운영 효율성 제고</p>	<p>2</p> <p>고객과의 디지털 접점 강화</p>	<p>3</p> <p>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통한 스마트 제조</p>
--------------------------------------	------------------------------------	---